

# 한국의 여성복지와 사회복지정책

안동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서울 2지역 본부 대리

## Women's Welfare and Social Welfare Policy in Korea

Dong-Hwa Aan

Children's Foundation Seoul 2 Regional Headquarters

**요약** 여성복지의 단순한 전반적인 사회복지의 틀속에 머무르기 보다는 여성중심적이고 독립적인 복지시행노선을 표방할 필요가 있다. 상당수의 기존의 여성복지 프로그램들은 가부장적인 전제하에서 다분히 여성보호적인 경향을 보여 왔다. 그러나 앞으로의 여성복지의 여성들로 하여금 가족이라는 한정된 틀을 벗어나 한 개인으로써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여성에게 의존하는 가족을 보호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도 여성복지의 중요한 측면이라고 하겠다. 즉 아동이나, 장애인, 노인을 돌보아야 하기 때문에 노동 참여의 기회를 잃어 버린 여성에게 그 대가를 정부에서 경제적으로 직접 간접 보상해 주는 방안도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밖에 사회교육을 통하여 재생산활동에 남성의 참여를 유도하여 가족에 대한 여성의 의무를 완화 시킴으로써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 여성복지, 사회복지실천, 가족복지, 일가정양립, 사회복지정책, 여성중심적

**Abstract** Women's welfare needs to claim a women-centered and independent welfare implementation line rather than simply staying within the framework of overall social welfare. A significant number of existing women's welfare programs have shown a tendency to protect women under the patriarchal premise. However, women's welfare in the future should go in the direction of helping women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as an individual out of the limited frame of family. Providing compensation for protecting dependent families is also an important aspect of women's welfare.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study how the government provides economic direct and indirect compensation to women who have lost the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labor because they have to take care of children, the disabled, or the elderly. In addition, it is expected that welfare can be improved by inducing men's participation in reproductive activities through social education and relieving women's obligations to their families.

**Key Words** : Women'S Welfare, Social Welfare Practice, Family Welfare, Work-Family Balance, Social Welfare Policy, Women-Centered

### 1. 서론

우리나라에서 「복지정책」이 실시되어 온 이래로, 여성은 아동, 장애인, 노인과 더불어 국가의 복지정책의 주요

한 대상집단이 되어 왔다. 그러나 꾸준한 정부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남성과는 달리 여전히 취약한 환경 속에 처해 있다. 이들 여성에 대한 기존의 복지정책도 관습적인 답습수준 이상을 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1-3].

\*Corresponding Author : Dong-Hwa Aan (party0n@naver.com)

Received November 01, 2022

Accepted December 21, 2022

Revised December 1, 2022

Published December 30, 2022

따라서 대부분의 여성들은 복지국가의 이념속에서도 상당히 소외된 집단으로 존재해 왔으며, 우리가 흔히 접하게 되는 '빈곤의 여성화'란 개념은 복지국가가 갖는 남성과 여성의 편견적인 시각의 산물이라고 해석된다[4]. 이와같이 여성의 복지는 다른 대상들을 위한 복지정책의 일부분으로 다루어져 왔고, 다른 부문의 복지향상으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이루어 질 수 있는 부수적인 것으로 인식되므로써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낙후된 것으로 보인다[5-8].

기존의 복지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경제적인 복지를 누리는 것으로 집약되어, 여성복지의 목표도 빈곤이나 요보호 여성의 경제력 향상을 위주로 한 자립능력배양을 중심의 물질적 생산노동을 중요시하였다[9-11]. 그러나 후기 산업사회에서의 여성의 복지정책은 지금까지 간과되어 왔던 재생산의 측면을 함께 다루어야만 할 것이다. 또한 가정내에서 가사노동을 담당하는 전업주부의 복지 증진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12-15]. 특히 다가올 21세기에는 재택근무의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일과 가족의 영역이 상호 밀접한 관계를 맺을 것이므로 가사노동의 가치평가에 따른 여성복지 증진은 필수적이다[16-18]. 그러므로 단순히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여성, 빈곤한 여성,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복지가 아니라 모든 여성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다양하고 다차원적인 여성복지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즉여성의 생산활동 뿐만 아니라 재생산 활동까지 복지의 개념을 확대하여무릇 포괄적이고도 보편적인 복지 정책을 세우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바람직 하다고 하겠다[19-22].

정부에서는 지난 1995년 여성발전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다양한 움직임을 보였는데, 이와 동시에 대구시에서도 여성발전을 위한 기본 계획을 세우고, 제 1차 5개년 계획을 1998년-2002년으로 설정하여 [23-27],지금까지 특정집단의 여성에게 한정적으로 실시되어 왔던 여성복지 영역을 확대하여 모든 여성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정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여성복지관련 정책이나 제도들을 다시 살펴보고, 보다 나은 정책향상을 위한 논의는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사료된다.

편모가구는 양부모가구나 편부가구에 비해 경제적 문제, 정서적 문제,대인관계망적 문제, 자녀양육 및 역할조정 문제 등의 다양한 문제를안고 있다. 특히 저

소득층 편모가 겪는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은 배우자와의 이별과 함께 오는 가계책임자라는 역할을 떠맡으면서, 다중역할을 수행해야만 하는데에서 기인되는데, 이들의 스트레스는 매우 높다.또한 사회적 인식도 그다지 긍정적이지만은 아니므로 원활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렵다[28-30]. 따라서 이들 여성집단을위한 복지 전략은 다른 집단과 달리 매우 복합적이고도 포괄적으로 구사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는 모자복지법을 근거로 하여 여러 가지 사회적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재가보호, 모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그리고 일시보호시설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보다 실질적지원으로는 모자가정자립지원기금 운용, 수익, 저소득 모자세대 결연사업등이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편부 가구에 대한 지원사업을 보면, 편부 가정 선정은편모가정 선정보다 소득이 높게 책정되어 있어 성차별적 소지를 안고 있다. 게다가 편모 가구가 편부 가구보다 10배 더 많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생업자금용자 예산은 2배 차이를 보일뿐이다[31-35]. 따라서 편모가구의 빈곤상황을 올바로 인지하고 특히 정책시행상 성차별적 요소를 배제할 필요성을 지적한다.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인구의 고령화현상은 여성들에게 직접적인영향을 미친다[36]. 먼저, 의존적인 인구의 증가를 가져와 이들을 보호하는사람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의 가족상황이나 사회적 인식에 의하면, 대부분 여성(며느리, 딸 등)인 경우가 많아, 결국은 여성의 보호적 역할이더욱 요구되고 있다[37]. 또한, 고령화과정에서 노년층의 성비율을 살펴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노년층에 대한 복지는 곧 여성의 복지로 이어지며, 이러한 현상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여성의 비율이 높아져 더욱 그렇다[38-41].

노년층대상의 사회복지정책이란 것은 곧 여성노인의 복지정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노인복지정책은 여성중심적인 서비스가 요구된다[42]. 특히 노인단독가구의 증가는 독거여성노인의 증가와 맞물리고 있으므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노인들이 겪는 질병이나 건강문제, 경제적 빈곤문제, 심리적 소외감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과감한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독거노인의 상당수가 여성이라는 점, 그리고 수명이 연장되어 이러한 여성노인들이 상당기간동안 살아 가야 한다는 점, 게다가 대부분의 여성노인들이 젊은 시

절 일을 한 경력이 없으므로 연금이나 다른 보험 등의 수혜가능성이 거의 희박하거나, 있더라도 그 액수가 아주 미미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43-44], 이들이야말로 미래의 여성복지에서 가장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대상이라고 하겠다.

지난 1985년 제 3차 세계여성대회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지적한 이래로 유엔은 1993년 “여성에 대한 폭력철폐선언”을 채택하였다[45-46]. 이러한 선언을 통하여 학대를 받는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하였고, 단순한 인권선언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 복지 수준에서 폭력의 희생물이 되는 여성들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한 전환점이 되었다. 사실, 여성에 대한 폭력(성폭력, 가정폭력 등)은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고 차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행동으로 남녀간의 평등한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데 큰 장애물이 되며, 또한 여성의 사회적, 심리적 복지에도 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47].

한편,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직장 내에서의 성폭력 내지는 성희롱을 당하는 여성들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성에 대한 개방적 태도에 따라 성폭력도 크게 증가하였다. 결국 많은 여성들이 가정이나 직장, 그리고 사회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폭력을 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폭력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장치나 이러한 사건들을 상담할 수 있는 전문적 기관을 활성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상담전화나 일시적 보호소가 운영되고 있기는 하지만, 보다 전문적인 차원에서 폭력을 당한 여성들을 상담하고 그 가족까지 포함한 가족상담을 진행하여 문제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장기간적 상담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서비스로는 이러한 여성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원정보를 알려주는 정보센터 등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한편, 성희롱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법적 개념조차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에 대항할 제도적인 장치는 거의 없으므로,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여성들은 이에 대한 무방비상태에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여성복지정책에 포함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는 전통적인 윤리관의 붕괴와 더불어 개방적인 성문화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나 태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결여된

상태이므로 미혼모 발생의 여지가 매우 크다. 게다가 최근에는 성폭력의 증가로 원하지 않는 임신, 출산으로 인하여 신체적, 심리적 고통을 겪는 여성들의 숫자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미혼모를 위한 시설은 전국적으로 8개소에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대구지역에도 1개소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운영 및 이용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윤락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윤락행위는 감소되기는커녕, 오히려 그 형태가 날로 다양해지고, 향락적인 성문화중심적인 사회 분위기에 편승하여 점차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여기서 성을 파는 윤락여성은 사회적 무관심이나 경멸의 대상으로 인식 되어왔으며, 이들은 우리 사회구조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여성에 대한 복지적 차원에서 논의는 매우 부족하고 처벌이나 법규정에만 관심을 쏟고 있는 실정이다.

윤락여성이란 개념에서 우리는 남녀에 대한 이중적인 성규범의식을 잘 알 수 있다. 이들 집단은 몇가지 특성이 있는데, 대부분이 미혼여성이며, 연령의 폭도 20대로 제한되어 있는편이다. 이들이 겪는 문제는 경제적 문제와 심리적 문제 뿐만 아니라 소위 매춘이라는 직업상의 노동과정에서도 여성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불공평성을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나 지역사회에서도 이들 여성집단에 대하여 단순히 단속이나 처벌만이 아니라, 이들이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작업이 매우 필요하다. 긴급전화 서비스는 일반 윤락여성집단이나 윤락의 위험에 처하여 있는 여성들에게 정보제공, 위기개입 등의 기능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하다. 또한 상담서비스를 통하여 성교육실시, 의식교육함양등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가능하다면 이들에게 피부로 느껴질 수 있는 현장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예산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겠다. 한편, 장기적으로는 윤락여성을 위한 보호소가 필요하고, 우리지역에도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하드웨어적인 보호소의 존재여부가 아니라, 그 속에서 어떠한 프로그램등이 지원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이들은 사회의 일탈집단으로 생활하여 왔기 때문에 자존감이 매우 낮아 심리적상담을 통하여 자존심을 높혀 줄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이와 동시에 직업훈련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져, 매매춘에서 나와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부심을 갖도록 도와 주어

야 한다. 즉 직업(기술교육) 등을 통한 사회적응 프로그램이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이들에 대한 통합적 시각에서의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전국 장애인수는 약 956천명이며, 여성장애인은 전체의 43.9%에 해당되는 411천명이다. 정부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여러 가지 복지증진 시책을 내놓았으나, 여성장애인들은 이중 삼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 즉 장애인의 어려움과 더불어 여성이라는 사실 때문에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눈에 띈다. 먼저 여성장애인에 대한 기초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정책의 근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남성장애인들과는 달리 여성장애인들이 겪는 고통을 토로할 수 있는 서비스제공과 이 둘간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정보망 구축이 필요하다.

## 2. 본론

여성복지는 실무에서는 「부녀복지」와 혼용되어 쓰이는데, 여성의독립성과 남녀평등적 시각에서는 「여성복지」가 보다 발전된 개념이다. 즉 여성복지는 복지 수혜 대상이 부녀복지정책에 나타난 요보호 여성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일반여성에게까지 확대된 정책을 모색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성복지 실태는 수혜 대상집단의 특성에 따라, 일반여성(미혼여성, 취업주부, 전업주부), 편모가구, 노인여성, 학대받는여성, 미혼모, 매매춘관련여성, 그리고 장애여성 등으로 나누어 살펴 보고자 한다.

남성과 여성의 인구비율은 전국 비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남성이 50.3%, 여성이 49.7%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여성은 전체 인구의 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예산에는 성에 따른 차이가 있으며, 전반적인 복지 구도안에서 여성복지 분야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미흡한 경향을 보인다.

일반여성을 위한 복지는 주로 여성회관이나 종합복지관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져 왔다. 특히 저소득층이 밀집되어온 공단지구나 거주지역을 대상으로 여성들의 사회교육의 형태로 실시되어 왔다. 구체적인 교육내용을 살펴 보면 기술교육, 취미, 교양, 보육 그리고 상담 등의 분야로 나누어 대단위 강의를 통하여 직업보조수단을 위한 기술교육이나 전반적이 교양함양과 전달하는데 그 중점을 두어 왔다. 현재 대구광역시의 여성회관은 2곳, 사회복지관은 19곳으로 전체여성의 복지욕

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다소 미흡하다(대구통계연보, 1996).

정부나 지역사회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수혜를 받는다는 사실을 당당한 권리로써가 아니라 오히려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현실은 지금까지의 정부나 지역사회의 복지정책이 지나치게요보호 여성중심으로 서비스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증폭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어 있으며, 국민으로서 여성들도 이러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여성복지 정책은 경제 발전 중심의 논리속에서 저소득층 중심의 요보호대상 여성들을 위한 잔여주의적 복지 정책을 시행하여 왔다. 그러나 소득 1만불 시대에 돌입하여 국민들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향상된 이즈음에 여성들의 복지욕구도 다양화되어 가면서 모든 여성을 위한 보편주의적 복지정책으로 전화될 시점이다. 사실, 지금까지 관행으로 실시되어 온 복지관 등의 시설 중심에서 이루어지던 일반여성 대상의 복지 프로그램은 급변하는 사회와 증대되는 개인욕구의 수준을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의 욕구증대와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새로운 지식전달도 일반여성들에게는 복지서비스로 인식되므로, 이러한 사회교육적인 측면에서의 지원도 확대되어야 하겠다.

미혼여성들에게는 사회교육차원에서 지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고 참여의 편의성도 고려된 프로그램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한다. 전업주부인 경우에는 실질적 경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각종 기술교육이나 직장연계 프로그램등이 요구된다. 또한 여가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미래사회에서 여성들을 위한 전문적 수준의 취미활동 프로그램도 중요한 복지지원책이다. 가사노동이 사회적으로 임금노동과 동등하게 평가되고 인식된다면, 그리고 전업주부들의 전문성을 띤 취미활동에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더 이상 할 일 없는 여성들의 "시간때우기"라는 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으며 여성의 자아실현이란 목적을 달성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취업주부들에게는 자녀양육이나 노동시장에서의 남녀평등성 문제가 더욱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자녀양육을 위한 탁아프로그램은 주요한 관심사로 부각되기 시작하여, 1961년 아동복지법이 제정되었는데, 이 법은 원래 구빈사업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1982년 유아교육을 위한 유아교육진흥법이 제정되면서, 비로소 본격적인 여성복지를 위한 하나의 사회법으로 자리잡아 나갔다. 그러나 취업주부를 위한 기존의 복지정책은 노동시장의 남녀평등적인 측면보다는 주로 모성보호측면이 강하였으므로 재고해 볼 여지가 있다. 먼저, 여성복지는 단순히 전반적인 사회복지의 틀속에 머무르기 보다는 여성중심적이고 독립적인 복지시행노선을 표방할 필요가 있다. 상당수의 기존의 여성복지 프로그램들은 가부장적인 전제하에서 다분히 여성보호적인 경향을 보여 왔다. 그러나 앞으로의 여성복지는 여성들로 하여금 가족이라는 한정된 틀을 벗어나 한 개인으로써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 3. 결론

21세기를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 가족과 사회에서의 여성의 역할은 더욱 활발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여성 복지에 대한 몇가지 정책기존의 대부분의 복지서비스가 특정 집단 여성들을 대상으로 구호적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서비스 수혜자는 「문제여성」혹은 「빈곤여성」으로 인식되어, 자긍심을 저하시키고, 복지서비스의 보편성과 대중성을 상실하는 경향을 보인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일반여성의 복지를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복합적인 서비스를 실시할 때야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여성복지가 이룩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미래 사회에서는 여성이 자신의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더욱높여주고 이러한 선택속에 전업주부라는 직책도 역시 포함되어 여성에 대한 복지 정책이 취업/비취업에 따라 차등적인 혜택이 아니라, 어떤 선택을 하여도 복지수혜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겠다. 취업여성에 대해서만 자녀양육지원을 비롯한 각종 보육서비스 등을 실시 하는 것은 전업주부들의 입장에서는 결코 평등한 정책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다. 공공기관의 보육서비스가 확대되어 많은 여성들이 보육서비스가 필요할 때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여성에게 의존하는 가족을 보호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도 여성복지의 중요한 측면이라고 하겠다. 즉 아동이나, 장애인, 노인을 돌보아 하기 때문에 노동 참여의 기회를 잃어 버린 여성에게 그 대가를

정부에서 경제적으로 직접 간접 보상해 주는 방안도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밖에 사회교육을 통하여 재생산 활동에 남성의 참여를 유도하여 가족에 대한 여성의 의무를 완화시킴으로써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본적인 남녀 평등 시대가 결여된 부분의 시정도 요구된다. 가령 등시각에서 설정된 복지로 나가야 할 것이다.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거택보호나 취로사업등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생업자금융자는 남성들에게 편중되어 실제로 여성이 어떠한 자립력을 갖추어 빈곤에서 벗어나는 기회를 갖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즉 여성들은 주로 보조 내지는 일시적인 복지혜택을 주는 정책으로 일관되어 있는 반면, 남성들의 경우에는 근본적인 자립력을 키워 주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따라서 여성을 위한 효과적인 복지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하여서는 가부장적이고 전 근대적인 체계에서 벗어나 여성을 주체적이고 개별적인 복지수혜대상자로 재정의 내리는 것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본다. 그리하여 미래사회의 여성복지는 의존적인 여성들을 위한 복지가 아니라 독립적이고 남녀 평등시각에서 설정된 복지로 나가야 할 것이다.

여성복지 정책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더불어, 실무선 상에서는 여성정책담당 행정기구의 연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각 부서간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행정의 유연성과 적응성을 기한다. 또한 복지서비스 전달이나 시행과정에서 전문성을 확립한다면, 바람직한 여성복지가 발전되리라 기대해 본다.

## REFERENCES

- [1] M. S. Kim & Y. H. Kim. (2019). Effects of combined parental attachment style on children's self-esteem & interpersonal relationship. *Journal of family relations*, 24(1), 81-98. DOI : 10.21321/jfr.24.1.81
- [2] M. H. Lee. (2018). The effect of child, adolescent period's father-child relationship on interpersonal problems among married women : The mediating role of impaired objective self and emotional regulation difficulties. *Journal of family relations*, 23(1), 97-120. DOI : 10.21321/jfr.23.1.97

- [3] Y. J. Cho. (2021). Effects of Interpersonal Problems on Interpersonal Affect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Satisfaction among Adults: Moderating Effects of Gender.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33(4), 1671-1694.
- [4] G. M. Song & H. H. Park. (2016). Mediating Effects of Matter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Attachment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The Kore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23(3), 113-131.
- [5] M. A. Oh & S. B. Kim. (2021). The impact of family support and interpersonal relations on undergraduate students' ego identity. *Culture and Convergence*, 43(3), 873-901.  
DOI : 10.33645/cnc.2021.03.43.3.873
- [6] J. H. Hong. (2020). Research Trends in Effects of Adult Attachment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 Analysis of Academic Journals in Korea. *Journal of Counseling Education Research*, 3(1), 94-108.
- [7] N. K. Lee. (2019). Narrative Inquiry into Interpersonal Conflict in Nursing Student. *Journal of Narrative and Educational Research*, 17(3), 5-29.  
DOI : 10.25051/jner070301.
- [8] E. H. Lee & Y. S. Lee. (2014). Research on Counseling Model Regarding Self-Consciousness Phenomenon and Enneagram Psychological Dynamic. *Enneagram Psychological Dynamic Study*, 1(1), 225-247.
- [9] K. O. Ryu & S. M. Lee. (2015). Enneagram Temperamental Counseling Technique for Youth - Focused on Heart-centered Youth-. *Enneagram Psychological Dynamic Study*, 2(2), 153-176.
- [10] K. O. Ryu. (2015). Application on Youth Counseling Using Self Psychology and Empathy for Each Enneagram Temperaments. *Enneagram Psychological Dynamic Study*, 2(1), 131-149.
- [11] H. M. Lee & W. J. Kim. (2018). Structural Relation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Life Satisfaction and Depression among People Living Alone.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49(3), 147-177.  
DOI : 10.16999/kasws.2018.49.3.147
- [12] M. S. Park. (2019). A Case Study of Meditation-Bsed Enneagram Counseling for ICU New Nurses' Stress on Care of Dying Patients. *Journal of Meditation based Psychological Counseling*, 22, 97-111.  
DOI : 10.12972/mpca.20190012
- [13] S. Y. Lee. (2018). A Cases of Enneagram Counseling Strategy Programs. *Journal of Meditation based Psychological Counseling*, 19, 9-23.  
DOI : 10.12972/mpca.20180002
- [14] J. S. Park. (2017). Improvemen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through Enneagram Four Noble Truths Counseling Program. *Journal of Meditation based Psychological Counseling*, 18 20-28.
- [15] S. Y. Cho. (2019). An Autoethnography on the Experience of a Qualitative Researcher as a Social Worker in the Field of Social Work. *Korean Academy of Qualitative Research in Social Welfare*, 13(2), 5-35.  
DOI : 10.22867/kaqsw.2019.13.2.5
- [16] J. K. Hong. (2016). A Study on Empathic Understanding for Effectiv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The Korean Journal of Elementary Counseling*, 15, 563-577.
- [17] M. J. Lee. (1997). A Study on Interpersonal Relations Promotion Techniques. *Korean Human Reations Review*, 2(1), 1-14.
- [18] I. R. Hwang. (2017). Enneagram and Counseling. *Journal of Enneagram Studies*, 14(2), 7-33.
- [19] I. R. Hwang. (2005). Counseling and Personality Type: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the Enneagram in Personal Counseling. *Journal of Enneagram Studies*, 2(1), 25-44.
- [20] C. S. Park, I.S.Park, M.Y.Lee, N. R. Bae & S. R. Kim. (2019). *Korea Enneagram Personality Inventory(KEPI)*. Seoul: Korea Enneagram Practice Research Institute.
- [21] N. R. Bae & J. W. Kim. (2021). Study on Experience of Prospective Social Workers Participated in Social Welfare Field Practice during COVID-19 Pandemic.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2(11), 301-310.  
DOI : 10.15207/JKCS.2021.12.11.301.
- [22]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n. d.) [http://ncov.mohw.go.kr/bdBoardList\\_Real.do?brdId=1&brdGubun=11&ncvCntSeq=&contSeq=&board\\_id=&gubun=](http://ncov.mohw.go.kr/bdBoardList_Real.do?brdId=1&brdGubun=11&ncvCntSeq=&contSeq=&board_id=&gubun=)
- [23] COVID-19 Vaccination. (n. d.). <https://ncv.kdca.go.kr/>
- [24] N. R. Bae. (2021). A Study on COVID-19 and Changes in Lif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2(12), 281-286.  
DOI : 10.15207/JKCS.2021.12.12.281
- [25] N. R. Bae. (2022). A Study on COVID-19 Fear, Vaccine Acceptance, and Quality of Life. *Journal*

-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3(1), 253-259.  
DOI : 10.15207/JKCS.2022.13.01.253.
- [26] V. E. Frankl. (1959). *Man's Search for Meaning: An Introduction to Logotherapy*. Boston, MA : Beacon Press.
- [27] T. S. Yoon. (2016). *The Influence of Stress Coping on Psychological Well-Being: The Mediating Effect of Meaning in Life*. Master's Degree. Ajou University, Seoul.
- [28] S. Y. Park & S. M. Kwon. (2012). A theoretical review with clinical implications for the meaning in life.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31(3), 741-768.
- [29] R. F. Baumeister, (1991). *Meaning of life*. New York : Guilford Press.
- [30] R. A. Emmons. (2003). Personal goals, life meaning, and virtue: Wellsprings of a positive life. In C. L. M. Keyes & J. Haidt (Eds), *Flourishing : Positive psychology and the life well-live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31] H. J. Herman. (1989). The meaning of life as an organized process.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Practice, Training*, 26(1), 11-22.
- [32] E. Klinger. (1998). The search for meaning in evolutionary perspective and its clinical implications. In P.T.P. Wong & P.S. Fry (Eds.), *The human quest for meaning: A handbook of psychological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 Mahwah, NJ: Erlbaum.
- [33] M. F. Steger, P. Frazier, S. Oishi & M. Kaler. (2006). The meaning in life questionnaire: Assessing the presence of and search for meaning in lif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3(1), 80-93.
- [34] P. T. P. Wong. (1998). Meaning-Centered Counseling. In P.T.P. Wong & P.S. Fry (Eds.), *The human quest for meaning: A handbook of psychological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 Mahwah, NJ : Erlbaum.
- [35] K. M. Youn. (2018). *The relationship among Uncertainty, Meaning in Life, and Anxiety in Preoperative Cancer Patients*. Master's Degree. Chungbuk University, Cheongju.
- [36] S. H. Chae. (2017). *A Meta-Analysis on Variables Related to the Meaning in Life*. Doctoral dissert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 [37] S. Folkman. & R. S. Lazarus. (1980). An analysis of coping in a middle-aged community sampl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1(3), 219-239.
- [38] S. Folkman & R. S. Lazarus. (1985). If it changes it must be process: study of emotion and coping during three stages of a college examin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1), 150-170.
- [39] S. Folkman, R. S. Lazarus, R. J. Gruen & A. DeLongis. (1986). Appraisal coping, health status, and psychological symptom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3), 571-579.
- [40] C. L. Park & S. Folkman. (1997). Meaning in the context of stress and coping.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1(2), 115-144.
- [41] Y. H. Lee. (2007). *Mental Health Problems*. Seoul: Haghyeonsa.
- [42] S. H. Shin. (2017). *Study on the Stress Theory and the Coping Method*. Master's Degree. Daejin University, Gyeonggi-do.
- [43] R. W. White. (1974). Strategies of adaptation: an attempt at systematic description. In G.V. Coelho, D. A. Hamburg & J. E. Adams (Eds.), *Coping and adaptation*. New York : Basic Books.
- [44] D. L. Gutmann. (1967). *An exploration of ego configuration in middle a later life*. New York: Academic Press.
- [45] A. T. Ebata & R. H. Moos. (1991). Coping and adjustment in distressed and healthy adolescents.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 Psychology*, 12, 33.-54.
- [46] D. S. Lee. (2015). *The relationship between Exposure to Disaster through the Media, Coping Strategies, and Secondary Traumatization*. Master's Degree.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47] Y. J. Lee. (2005). Psychological Studies of Crisis From disaster. *Crisisonomy*, 1(1), 85-99.

## 안 동 화(Dong-Hwa Aan)

[정회원]



- 2009년 2월 : 대구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가족복지학과(사회복지학사)
- 2023년 3월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대학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 석사과정)
- 2013년 3월 ~ 현재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서울 2지역본부 대리

- 관심분야 : 아동복지, 가족복지, 사회복지실천
- E-Mail : party0n@naver.com